

 한국시멘트협회 KOREA CEMENT ASSOCIATION	보 도 자 료		자원순환사회 시멘트산업이 앞장서겠습니다!
	발표일시	2021. 2. 17(수) / 총2매	2019 대한민국 환경대상 4년 연속 수상
담당 부서	홍보협력팀	담 당 자	· 한찬수 부장(홍보협력팀장) · ☎ (02)538-8237/HP(010)3759-7108 E-Mail speedfire@cement.or.kr

친환경 시멘트산업, 저탄소 경제 대전환에 나선다.

-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출범 및 공동선언문 서명 통해 탄소중립 도전 -
- 순환경제 활성화, 공정 효율화로 온실가스 감축, 신산업 모델 구축 추진 -

시멘트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2050 탄소중립에 나선다.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시멘트협회(회장 이현준, 現 쌍용양회 대표)는 지난해 10월 정부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에 동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학·연·관 협의체인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를 구성, 발족하고 탄소중립에 필요한 혁신기술 개발 로드맵 마련 등 저탄소 경제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출범식에는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이현준 협회장과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 외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및 삼표시멘트 문종구 대표, 한일현대시멘트 장오봉 대표, 아세아시멘트 이훈범 대표, 성신양회 김상규 대표 등 주요 7개 시멘트업체 대표와 학계·전문가 등 약 15명이 참석하였으며 시멘트업체는 “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적극적 동참 의지를 공식 표명하였다.

공동선언문에는 혁신 기술개발과 생산구조 전환을 전략으로 단기적으로는 순환자원(대체연료) 사용 확대, 저탄소 원료 활용 및 공정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저탄소시멘트 생산기술, 탄소 포집전환 기술 개발 등으로 탄소순환형 시멘트 생산공정 구현 계획이 담겨 있다. 이외에도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에서 공동 과제 논의와 상호 협력체계 강화, 정부 정책과제 발굴·개선과 후방산업과 연계를 통한 탄소중립

신산업 모델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려운 대내외 여건하에서도 세계시멘트협회(World Cement Association, WCA) 및 각 국 시멘트업계와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저탄소사회 실현에 나설 계획이다.

탄소중립 도전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시급함을 공감해 온 시멘트업계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시멘트 수요 감소 등 산적한 경영현안 해결에 앞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한 결과다. 시멘트산업은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한 제조공정 특성상 철강, 자동차 등 타업종에 비해 감축 수단 확보에 불리한 실정이다.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장은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오늘 논의하는 탄소중립은 산업계전반에 걸친 혁신은 물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목표지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인류 공통의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여 시멘트업계가 혁신 기술개발과 생산구조 전환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과 함께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주요국 2050 탄소중립화 현황 및 국내 시멘트업계의 과제」와 「시멘트업종 탄소중립 R&D 로드맵 및 추진계획」 등 2건의 연구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자유토론과 대정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안해결을 위한 양방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